

지난 수십 년간  
오직 고객만을 위해 날아온  
두 항공사가 만납니다

이륙의 순간마다  
새롭게 준비하는 다짐으로

고객의  
더 안전하고  
더 편안한 비행을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 
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

# 다시. 처음의. 마음으로

